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상도편 「산천(山川)」 항목에 수록된 수경(水景) 요소의 특징*

임의제* · 소현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terscape Elements from the Chapter 「Sancheon」 of the Volumes Gyeongsang-province in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Lim, Eui-Je*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consideration of the usages of traditional waterscape elements, which are difficult to define their concepts and their differences and it has been proceeded mainly with analysis of literature. It elicited various waterscape types by extracting the place names associated with the waterscape elements from the chapter 「Sancheon」 of the volumes Gyeongsang-province in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which is a government-compiled geography book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and drew the features of each waterscape element by interpreting the dictionary definition and the original text and studying the similar examples. The results of study are drawn as follows.

1. The chapter 「Sancheon」 includes 22 types of waterscape elements and they are classified by means of locations and water-flow forms: River Landscape, Lake & Pond Landscape, Coast landscape. 2. River landscape maintaining constant natural water-flow constitutes the linear type, related to the class of stream, which includes 'Su(water)', 'Gang(river)', 'Cheon(stream)' and 'Gye(brook)' and the dotted type, created by the nature of trenched meander rivers, which includes 'Tan(beach)', 'Roe(rapids)', 'Pok(waterfall)' and 'Jeo(sandbank)'. 3. Lake & Pond Landscape forming water collected in a certain area constitutes 'Ho(lake)', which is a broad and calm spot created around mid and down stream of river, 'Yeon(pool)', 'Dam(pond)', 'Chu(small pond)', which are naturally created on the water path around mid and down stream of river, 'Ji(pond)', 'Dang(pond)', 'Taek(swamp)', which is collected on a flatland and 'Cheon(spring)', 'Jeong(spring)' which means gushing out naturally. 4. Coast Landscape includes 'Ryang', 'Hang', which are the space between land and an island or islands, 'Got(headland)' which sticks out from the coast into the sea, 'Jeong(sandbank)' which forms sandy beaches and 'Do' which shows high appearance frequency by reflecting the geographical importance of islands.

This study comprehended the diversity of traditional waterscape elements and drew the fact that they are the concept reflecting the differentiated locational, scenic and functional features. That way, it understood the aesthetic sense on nature, which ancestors had formed with the interests in natural landscape and the keen observation on it, became the basic idea elucidating the characteristic on Korean traditional gardens, which minimize the artificiality and make nature the subject.

Key words: Geography Book, Place Name, Superb Landscape, Traditional Landscape

* 이 논문은 2014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hssu@uos.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용어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전통 수경(水景) 요소의 쓰임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문헌 분석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조선 전기 관찬(官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상도편 「산천」 항목에서 수경과 관련된 지명을 발췌하여 다양한 수경 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적 정의와 원문에 대한 해석 및 유사 사례 고찰을 통해서 수경 요소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산천」 항목에 수록된 수경은 22개 요소였으며, 이를 입지와 물 흐름의 방식에 따라서 하천경관, 호소(湖沼)경관, 해안경관으로 분류하였다. 2. 자연적 물 흐름을 항시 유지하는 하천경관은 물줄기의 위계와 관련된 선적(線的) 형태의 ‘수(水)’, ‘강(江)’, ‘천(川)’, ‘계(溪)’와 감입곡류하천 특성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점적(點的) 형태의 ‘탄(灘)’, ‘뢰(瀨)’, ‘폭(瀑)’, ‘저(渚)’로 구성된다. 3. 일정 구역에 모인 물 형태를 갖는 호소경관은 ‘강’의 중하류에 형성된 넓고 잔잔한 지점을 일컫는 ‘호(湖)’, 하천 중상류 유로 상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淵)’, ‘담(潭)’, ‘추(湫)’, 평지에 모인 물로서 ‘지(池)’, ‘당(塘)’, ‘택(澤)’, 그리고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을 지칭하는 ‘천(泉)’, ‘정(井)’으로 구성된다. 4. 해안경관에는 육지와 섬, 혹은 섬과 섬 사이 공간을 지칭하는 ‘량(梁)’과 ‘항(項)’, 바다를 향해 돌출된 ‘곶(串)’, 바닷가 모래사장 형태의 ‘정(汀)’, 그리고 도서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이 반영되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도(島)’가 포함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 수경 요소의 다양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들이 입지적, 경관적,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특징을 반영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선조들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형성된 자연에 대한 심미안이 인공을 최소화하고 자연이 주체가 된 우리 전통정원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제어: 승경(勝景), 전통경관, 지리지, 지명(地名)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화를 반영하는 ‘경관(景觀)’은 함의하는 바가 다양하고 모호성을 지니기 때문에¹⁾ 설명하기 어렵고, 더불어 경관을 다루는 분야로서 ‘조경(造景)’ 역시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통경관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근거와 의미를 규정 짓는 일은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정원(庭園)’과 ‘정원(庭苑)’, ‘원림(園林)’, ‘원유(園囿)’처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한·중·일 삼국은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정원 관련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바 있다. 또한 정원과 관련된 전통건축물로서 누(樓)·정(亭)·각(閣)·사(榭)·대(臺)·헌(軒)·당(堂)·정사(精舍)를 명확하게 구별 짓는 것이 어려울 만큼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현재 전통건축²⁾과 조경 분야 연구에서 정리된 용어의 정의가 유용하게 인용되고 있다. 이처럼 용어는 문화에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따라서 전통 관련 용어의 용례(用例)와 전거(典據)를 찾아 분류하고 특징을 밝히는 것은 전통경관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특히 전통경관 인식과 활용에 있어서 물에 대한 중요성은 별서를 대표로 하여 임수(臨水)인접형 혹은 임수계류인접형 등으로 입지 특성을 설명하면서 논의되었다. ‘침류정(枕流亭)’,

‘요수정(樂水亭)’, ‘관수루(觀水樓)’와 같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누정이 물을 바라보고 물소리를 듣기에 최적의 장소에 자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So, H. S. etc.(2007)는 거창에 소재한 누정 30개소의 입지를 분석하여 합천호로 들어가는 거창 지역의 주요 물줄기인 위천·황강·가천·사천변에 대다수의 누정 원림들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3]. 이때 경관 대상이 된 물에는 ‘자미탄(紫薇灘)’, ‘월연(月淵)’, ‘비파담(琵琶潭)’, ‘용추(龍湫)’와 같이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즉, 전통경관에서 ‘탄(灘)’, ‘연(淵)’, ‘담(潭)’, ‘추(湫)’ 등과 같은 수경(水景)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고, 서로 비슷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전통경관 용어들이 다수 수록되었으며, 국가 공식 기록이 지니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만족시키는 자료로서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관찬(官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0년(중종 25) 이행(李荇), 윤은보(尹殷輔), 신공제(申公濟), 홍언필(洪彦弼), 이사균(李思鈞) 등이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55권 25책으로 구성하였다[4]. 군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강조된 내용은 연혁·성씨·산천·역원·고적·인물 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서 수록된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

지 영향력을 가졌다. 이 책은 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정보를 종합한 백과전서(百科全書) 성격을 갖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 체제는 2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 주제는 지리, 행정, 군사이다[5]. 이 중에서 조정 분야와 관련이 깊은 「산천」 항목에는 읍을 기준으로 한 명산·하천·바다·호소·나루터 등의 거리와 방향, 경관이 묘사되어 있으며, 수록된 장소는 수많은 자연경관 중에서 그 당시 지리적 중요성과 경관적 인지도를 대변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 항목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경관의 지명어가 수록되었음을 인지하고,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산천」 항목에 실린 수경과 관련된 지명을 추출하여 수경 요소들을 도출하고,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개별 수경 요소의 개념과 차별화된 쓰임을 정리하고자 한다. 즉, 전통 수경 요소별 상호 차이점과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전통경관을 연구하는데 있어 과거의 경관을 읽는 키워드로서 용어에 대한 기본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출된 수경 요소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유형화 하는 작업 과정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사례를 나열한 것과 다른 가치를 지니며, 물과 관련하여 조선전기의 전통 경관 인식을 이해하는 기초적 단서를 제공하는 논리적 작업의 성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2. 연구사 검토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리학을 중심으로 하여 지형학, 문헌정보학, 한문학 등 인문학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체제와 「제영(題詠)」에 대하여 고찰하였고[5], 「토산(土產)」 항목의 구성과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6].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장소의 명칭과 관련하여 「천(遷)」계 지명어의 쇠퇴에 대한 연구[7]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조선전기 성곽(城郭) 연구[8]와 객관(客館) 연구[9]처럼 하나의 시설에 집중하기도 하였으며, 경관적 관점에서 「대(臺)」의 개념을 추출하여 정리한 연구[10]와 고려시대의 정원용어에 관한 연구[11]가 있다. 그밖에 경상도 일대의 자연지리 연구 자료[12]로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의의를 도출함으로써 경상도로 한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타당성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전래된 지명어(地名語)³⁾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선행 연구[13][14][15][16]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수경 요소와 관련된 「후부지명소(later elements of toponym)」의 구성 개념과 사용 범위를 고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조경학 분야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가치를 인식하고, 전통경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다양한 수경 요소를

도출하여 차별화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경관 인식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대상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각 항목의 순서와 내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속현(屬縣), 진관(鎭管), 관원(官員), 군명(郡名), 성씨(姓氏), 풍속(風俗), 형승(形勝), 산천(山川), 토산(土產), 성곽(城郭), 관방(關防), 봉수(烽燧), 궁실(宮室), 누정(樓亭), 학교(學校), 역원(驛院), 창고(倉庫), 교량(橋梁), 불우(佛宇), 사묘(祠廟), 능묘(陵墓), 고적(古跡), 명환(名宦), 인물(人物), 제영(題詠)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항목이 전국의 모든 군현에 수록된 것은 아니고, 각 군현에 따라 항목의 숫자가 상이하다. 전체 26개 항목 중 전통경관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형승」, 「산천」, 「누정」, 「제영」 항목이라 할 수 있다.⁴⁾ 이 중에서 「산천」 항목은 경상도에 속한 모든 군현에서 수록할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산천」 항목이 조경학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여타 수록 항목에 비해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많은 지명어를 수록하여 다양한 실증적 사례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승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Figure 1), 학술지 연구의 성격상 대상지를 한정해야 하므로 제21권부터 제32권에 해당되는 「경상도」편에 수록된 67개 군현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Table 1, Figure 2). 영남권역으로 통칭되는 경상남북도 일대를 사례 지역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조선전기의 전국 도 단위 권역 중 면적과 군현 수⁵⁾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둘째,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자연경관의 형성에 있어서 백두대간을 뼈대로 하는 산악 지형에 둘러싸인 하나의 큰 권역 안에 낙동강을 근간으로 하는 크고 작은 수계망이 발달하여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수경 사례를 접할 수 있으며, 남해와 동해에 연접함으로써 해안경관 유형을 포함한다. 셋째, 우수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하여 조선시대 이래 「경상좌·우도(慶尙左·右道)」⁶⁾라고 불렸던 이 지역에는 유교 문화가 발달하여 사대부의 경관 인식을 드러내는 지명 사례와 설명 자료가 많고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고을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리 체계에 따른 지역별로 편찬되었으므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 수경 요소를 분석하였다.

※ For the convenience of following study, each Gun and Hyeon is labeled with a serial number.

※ For the convenience of following study, each Gun and Hyeon is labeled with a serial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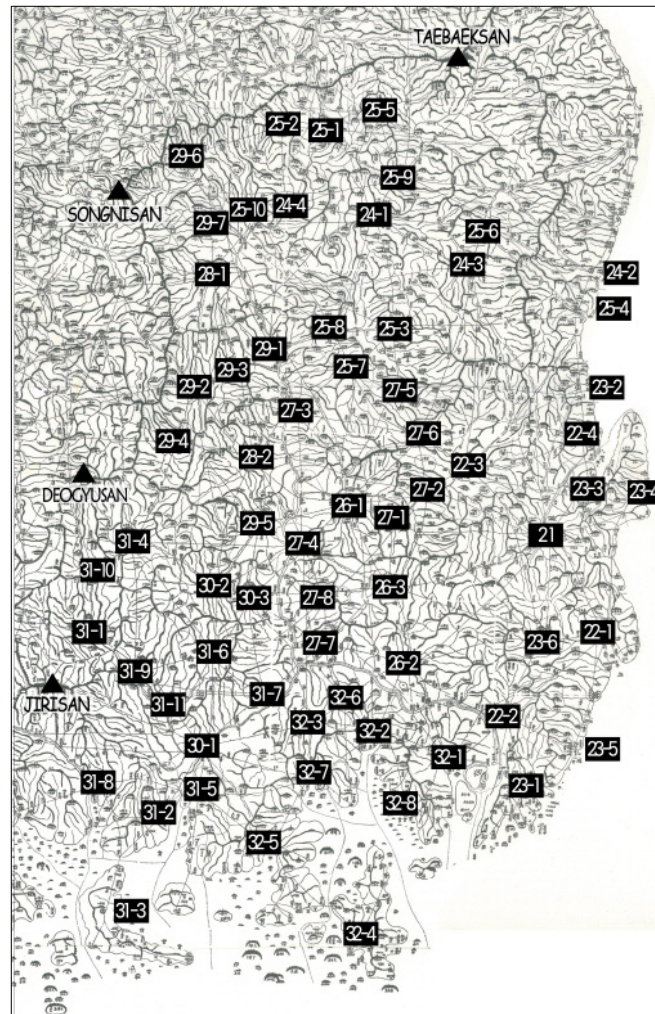


Figure 2. Location of Gun & Hyeon of Gyeongsang-province in early Joseon period (Ref: Drawn Based on [19])

2. 연구의 방법

선조들이 남긴 기록물에는 경관 대상이 되었던 지역의 장소를 지칭하는 명칭들이 등장한다. 이 중에는 현재까지 동일하게 사용되는 지명어도 있고, 사라진 지명어도 있다. 이들 기록물에 승경(勝景)이라고 규정된 장소는 산, 하천, 바위, 숲, 마을, 누정 등 다양한 유형이며, 특정 장소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을 설명하는 한자어 앞에 대상이 가진 형태적 특성이나 명명자의 심리적 의도가 반영된 한자어를 붙여 조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승경 유형을 구분하는데 사용된 용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전통경관의 일면을 이해하고 그 범위와 근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래 지명어는 전부의 지명형태소(전부지명소)와 후부의 지명형태소(후부지명소)로 구성된다. 전부지명소는 지명의 유래에 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으며, 후부지명소는 지

명의 유형, 즉 ‘마을·산·골·내’ 등과 같은 갈래임을 알려 준다[15]. 본 연구의 사례에서 ‘용연(龍淵)’의 전부지명소 ‘용’은 지명 유래를, 후부지명소 ‘연’은 지명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 항목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경관의 지명어가 수록되었음을 인지하고, 수경과 관련된 지명어에서 경관 형태를 규정짓는 ‘후부지명소’가 수경 요소라는 사실로 연계시켜 연구의 방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지명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문헌 연구로 이루어지며,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번역서 정보 중에서 경상도 편에 해당되는 제21권부터 제32권까지 「산천」 항목의 내용을 추출한 후 글 속에서 수경과 관련된 지명어만 모은다. 추출한 지명어의 후부지명소는 전통 수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수경 요소들이 된다.

둘째, 도출된 수경 요소 중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진 요소들

을 묶어 수경 유형별로 분류한다. 이때 국토지리정보원의 분류 사례와 자연지리학 개론서에서 물과 관련된 지명 유형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즉,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지명의 분류’ 편에서 조선시대 「해동지도」의 사례를 들어 자연지명의 유형 중 물과 관련된 것을 ‘하천’, ‘호소’, ‘정천(井泉)’, ‘해안’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각각의 형태소(후부지명소)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16]. 본 연구는 ‘정천’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례를 형태적으로 가장 근접한 ‘호소’ 유형에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대표적 자연지리학 개론서들의 물에 대한 자연지형의 분류(서술) 체계를 보면, ‘하천’, ‘해안’, ‘해양’으로 구분하였으며[20][21], 그밖에 ‘하천’, ‘해안’ 지형으로 구분하고 경관 부분에서 ‘하천과 호소’라는 제목으로 분류하였다[22]. 해류와 조석, 해저 등을 이르는 ‘해양’은 본 연구와 관련 없으므로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는 ‘하천’, ‘호소’, ‘해안’으로 수경 유형을 분류하였다. 하천경관에서 길이와 흐름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늘 흐르는’ 형태와 ‘머무는’ 형태는 다양한 수경 요소로 명명되어 나타나며, 이들에 대한 경관적 특성 고찰에 연구의 의미를 둔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과정을 아래쪽에 예시한 경상도 문경현 「산천」 항목의 서술을 통해서 설명하면, 밑줄로 표시한 10개의 지명에서 ‘산(山)’, ‘현(峴)’, ‘령(嶺)’, ‘천(遷)’을 제외한 ‘천(川)’, ‘연(淵)’, ‘탄(灘)’, ‘천(泉)’, ‘추(湫)’라는 다섯 가지 수경 요소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들 다양한 요소들은 세 가지 수경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주흘산(主屹山) 현의 북쪽에 있는 진산이다. 회양산(曠陽山) 가은 현 북쪽 15리에 있다. 3면이 모두 석벽이고, 옛날 군사 창고가 있었던 성이 있다. 이화현(伊火峴) 현의 서쪽 18리, 충청도 연평현의 경계에 있다. 제립령(雞立嶺) 속칭 저릅산(麻骨山)이라고 하는데, 망언으로 서로 비슷하다. 현의 북쪽 28리에 있고, 신라 때의 옛길이다. 관갑천(串岾遷) 용연(龍淵)의 동쪽 언덕이고, 토천(兔遷)이라고도 한다. 돌을 파서 사다릿길을 만들었는데, 구불구불 거의 6·7리나 된다. 소아천(所耶川) 현의 남쪽 6리에 있다. 그 근원이 들인데, 하나는 제립령에서, 하나는 새재(草岾)에서 나와 화봉원(華封院) 앞에서 합류하여 남쪽으로 흘러 관갑에서 가은천과 합쳐진다. 용연(龍淵) 현의 남쪽 22리, 가은과 소아 두 냇가 합류하는 곳에 있다. 전탄(犬灘) 호계현의 서쪽 5리에 있으며, 나루터가 있고, 남쪽으로 흘러서 함창현의 경계로 들어간다. 조천(潮泉) 현의 남쪽 소둔산에 있는 것으로서 물이 비위 구멍에서 나온다. 그 근원이 줄(線)같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솟아 넘치어 3리까지 먼저 가고 멎는 것이 마치 조수가 왕래하는 것 같다. 용추(龍湫) 새재(草岾) 밑의 동화원(桐華院) 서북쪽 1리에 있다. 사면과 밑이 모두 돌이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폭포가 있다. 용이 오른 곳이라고 전한다. (제29권 문경현 「산천」 항목)

셋째, 『설문해자』[23], 『한한대사전』[24], 네이버 백과사전[25]과 두산 백과사전[26] 등의 사전류를 이용하여 수경 요소별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여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는 사례의 원문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를 비교 고찰하여 수경 요소별 경관적 특징을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선조들의 전통 수경관 인식에 대하여 이해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수경 유형과 수경 요소

경상도 67개 군현의 「산천」 항목에서 소개한 지명은 모두 1,108개소였으며, 「산천」 항목의 특성 상 인문경관보다 자연경관의 출현 빈도가 월등하게 높았다. 이중에서 지명의 마지막 한자인 후부지명소가 담고 있는 뜻을 바탕으로 하여 추출한 수경과 관련된 지명은 383개소로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다. 여기서 물이 가진 특유의 유동성이 만든 다양한 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전통경관에서 물을 포함한 곳이 선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경과 관련된 지명어의 후부지명소인 마지막 한자들의 종류는 22가지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세 가지 수경 유형과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수경 요소로 분류하였다(Table 2).

22개 수경 요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입지와 흐름의 방식에 따라 육지에서 물의 자연적 흐름을 항시적으로 유지하는 ‘하천(河川)경관’, 물줄기가 한시적으로 체류하거나 일정 구역에 모인 물을 통칭하는 ‘호소(湖沼)경관’, 그리고 바닷가 ‘해안(海岸)경관’으로 나누었다. 수경 요소를 사전적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하천경관은 수(水:물), 강(江:큰 내), 천(川:내), 계(溪: 시내), 탄(灘:여울), 뱌(瀨:여울), 폭(瀑:폭포), 저(渚:물가, 모래섬) 요소, 호소경관은 호(湖:호수), 지(池:못), 당(塘:못, 저수지), 택(澤:못, 늪), 연(淵:못, 소), 담(潭:못, 소), 추(湫:늪, 못, 소), 천(泉:샘), 정(井:우물) 요소가 해당되며, 해안경관은 량(梁:들보, 교량), 항(項:목덜미), 콧(串:콧), 정(汀:물가, 모래섬), 도(島:섬) 요소가 포함되었다.

수경 유형에서 하천경관 39%(151개소), 호소경관 34%(130개소), 해안경관 27%(102개소) 순서로 비교적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런데 22개 수경 요소의 한자어 뜻풀이를 보면 ‘내’, ‘여울’, ‘못’, ‘물가’처럼 중복되는 의미를 지니는 요소들이 다수 나타난다. 현재는 비슷한 의미로 동일시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개로 구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용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출현 빈도가 높지 않고 생소하게 여겨지는 뱌(瀨), 정(汀), 저(渚)와 같은 수경 요소에 대한 고찰은 전통경관 연구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Table 2. Waterscape Types and Elements in Chapter 「Sancheon」

Type	Elements	Frequency	Examples of Representative Place Names
River (151)	水	4	[31-5]Sasu(泗水)/ [32-1]Sambusu(三分水)/ [32-3]Pasu(巴水)
	江	12	[22-2]Hwangsangang(黃山江)/ [22-4]Gokgang(曲江)/ [27-7]Gieumgang(岐音江)/ [28-1]Nakdonggang(洛東江)/ [30-1]Namgang(南江), Chokseokgang(矗石江)/ [30-2]Namgang(南江)/ [32-1]Hwangsangang(黃山江), Taeyagang(台也江)
	川	105	[21]Dongcheon(東川), Seochon(西川), Sadeungcheon(史等伊川), Muncheon(蚊川)/ [23-1]Beomecheon(梵魚川), Sacheon(絲川)/ [23-4]Cheoneuricheon(淺乙伊川)/ [25-5]Maetocheon(買吐川), Domicheon(道美川)/ [25-6]Sinhancheon(神漢川)/ [25-9]Nahwaseokcheon(羅火石川), Sonryangcheon(損良川)/ [25-10]Seonghwacheon(省火川), Sacheon(沙川)/ [29-3]Gamcheon(甘川)/ [31-11]Yangcheon(梁川), Dangyecheon(丹溪川)
	溪 (谿)	8	[24-2]Yeonjigye(燕脂溪)/ [25-2]Jukgye(竹溪)/ [25-5]Mulyagye(勿也溪)/ [25-8]Ssanggye(雙溪)/ [31-1]Namgye(濫溪), Noegye(湍溪), Seogye(西谿)
	灘	18	[24-1]Wabutan(瓦釜灘), Muryatan(勿也灘), Yochontan(蓼村灘)/ [25-10]Muheultan(無訖灘), Jaktan(鵲灘), Sujeongtan(修正灘)/ [27-4]Gwangtan(廣灘)/ [28-1]Songnatan(松羅灘)/ [31-9]Jangseontan(長善灘), Utan(牛灘)/ [32-3]Pungtan(楓灘)
	瀨	1	[30-2]Eumpungroe(吟風瀨)
	瀑	1	[30-2]Hwanggyepokpo(黃溪瀑布)
	渚	2	[22-2]Dongdujeo(東頭渚)/ [32-1]Doyoje(都要渚)
Lake & Pond (130)	湖	1	[26-1]Geumho(琴湖)
	淵	18	[21]Onjiyeon(溫之淵), Guryeon(堀淵)/ [22-1]Hwangryongyeon(黃龍淵), Ibamyon(立巖淵)/ [22-2]Gyewonyeon(鷄原淵), Okjiyeon(玉池淵)/ [26-2]Woryeongyeon(月盈淵), Gueyeon(白淵)/ [26-3]Geoyeon(巨淵), Imogyeon(李木淵)/ [29-1]Imaeyon(鯉埋淵)/ [29-6]Yongyeon(龍淵)/ [30-2]Bujayon(父子淵)/ [31-6]Jeomyeon(砧淵), Yuryeon(栗淵)/ [32-3]Dojangyeon(道場淵)
	潭	3	[24-1]Mangradam(網羅潭)/ [25-9]wolmyeongdam(月明潭)/ [31-1]Yongyudam(龍遊潭)
	湫	2	[29-6]Yongchu(龍湫)/ [32-1]Yongchu(龍湫)
	池	65	[22-1]Yeonji(蓮池), Daecheonji(大川池)/ [22-4]Dongakji(頓角池), Seorimji(西林池)/ [22-2]Beolji(伐池)/ [24-4]hongryeonji(紅蓮池), Daeji(大旨池)/ [25-3]Tanji(炭池)/ [25-8]Jeoji(猪池), Gaecheonji(開天池)/ [26-1]Seongdangji(聖堂池), Yeonhwaji(蓮花池)/ [28-1]Gonggeomji(恭檢池), Daejeji(大堤池)/ [32-1]Juchonji(酒村池), Musongji(茂松池)
	塘	1	[24-2]Yongdang(龍塘)
	澤	8	[27-4]Jangtaek(長澤), Daejitaek(大技澤)/ [27-7]Jangjataek(長者澤), Jaktaek(鵲澤)/ [27-8]Nugutaek(樓仇澤), Bangaetaek(盤介澤), Yongjangtaek(龍壯澤)/ [29-1]Godotaek(高道澤)
	泉	2	[27-7]Oncheon(溫泉)/ [29-6]Jochon(潮泉)
Coast (102)	梁	6	[30-1]Guraryang(仇羅梁)/ [31-2]Noryang(露梁)/ [31-3]Noryang(露梁), Jeokryang(赤梁)/ [32-1]Chuiryang(鶯梁)/ [32-4]Gyeonnaeryang(見乃梁)
	項	3	[23-1]Ohaeyahang(吾海也項), Choryanghang(草梁項)/ [31-3]Mijohang(彌助項)
	串	8	[23-3]Donggulbaegot(冬乙背串)/ [31-3]Dongcheongot(凍川串)/ [32-1]Geumdangot(金丹串)/ [32-5]Mareulsanggot(末乙上串), Haepyeonggot(海平串)/ [32-6]Yeohwagot(汝火串)
	汀	4	[24-2]Baekseokjeong(白石汀), Gyeongjeong(鯪汀), Jangjeong(長汀), Gyeongjeong(景汀)
	島	81	[22-1]Jukdo(竹島), Dongbaekdo(冬柏島)/ [22-2]Daejeodo(大渚島), Sadudo(蛇頭島), Soyojeodo(所要渚島)/ [23-5]Mujipodo(無只浦島), Jukdo(竹島)/ [24-2]Chuksando(丑山島)/ [26-2]Udo(牛島)/ [31-3]Sodo(蘇島)/ [31-5]Guryangdo(仇良島), Simsudo(沈水島), Chodo(草島), Jeodo(楮島)/ [31-8]Mokdo(牧島)/ [32-1]Deokdo(德島), Jukdo(竹島), Chuido(鷺島), Myeongjido(鳴旨島), Jeonsando(前山島), Deokjido(德只島), Gonjido(坤地島)

※ Marking of Gun and Hyeon with place name is on the base of a serial number from Table 1.

2. 수경 요소별 특징

1) 하천경관

(1) 수(水), 강(江), 천(川), 계(溪)

‘하천’은 큰물이 흐르는 ‘河(하)’와 작은 물이 흐르는 ‘川(천)’의 합성어로서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물이 흐르는 크고 작은 물길을 통칭한다. 『산천』 항목에서 ‘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의 황하처럼 ‘하’ 규모에 해당하는 하천⁷⁾이 우리나라에 없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큰 강을 ‘강(江)’, 작은 강을 ‘천(川)’이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하천경관 중에서 ‘수’, ‘강’, ‘천’, ‘계’는 물줄기의 크고 작음에 의하여 구분되는 요소로서 ‘수’, ‘강’, ‘천’은 비교적 큰 규모의

흐름을 가진 자연적인 물길이다. 여기서 '강'과 '천'을 엄밀히 구분할 수 없으나 '강'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천'은 그보다 작은 물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대동여지도』에서 '강'은 쌍선(雙線), '천'은 단선(單線)으로 그려 그 규모를 구분하고 있음에서 이해할 수 있다[29]. 실제로 압록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대동강, 금강은 유로(流路)가 400km 이상인 우리나라 6대 하천이며, 두만강 이외의 큰 하천은 대부분 서해와 남해로 흘러든다[30]. 『설문해자』에서도 '강'은 '입해(入海)'라고 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큰 내를 뜻한다. 따라서 「산천」 항목에서 '강'은 다른 하천경관에 비해 경관적, 의미적으로 중요하게 기술되었다.

다음으로 지명 사례가 105개소 추출된 '천'은 「산천」 항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천'이 '강'의 지류라는 위계를 시사한다. '천'은 규모와 흐름이 생활경관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경관적으로 뛰어난 곳이 많아서 '강'과 함께 자연 완상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 황산강(黃山江) 고을 서쪽 18리에 있다. 신라에서 사대독(四大讀)의 하나로 쳄고 중사(中祀)에 실려 있다. 고려에서는 무안(務安)의 용진강(龍津江)과 광양(光陽)의 섬진강(蟾津江)과 이 강을 배반하여 흐르는 삼대수(三大水)라고 일컬었다. 정포(鄭浦)의 시에, “강기에는 천 봉우리 빼어났고, 마을 서쪽에 한가닥 길 희미해라...말 타고 노닐던 이는 꽃 속에서 돌아오네. 마음껏 아름다운 경치 즐기고, 거닐다 보니 해질 무렵 되었네.” 하였다. (제22권 양산군)
- 남강(南江) 주 남쪽 1리에 있다. 강의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지리산 운봉현(雲峯縣) 경계에서 나오고, 하나는 지리산 남쪽에서 나오는데, 주 서쪽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의령현(宜寧縣) 경계에서 정암진(鼎巖津)이 된다. 최함일(崔咸一)의 시에, “오리들이 쌍쌍으로 물 차고 날며, 영산홍(映山紅)이 유리 같은 푸른 물에 거꾸로 비친다...” 하였다. 축석강(矗石江)에 누선이 있다. (제30권 진주목)
- 문천(蚊川) 부의 남쪽 5리에 있다. 사등이천의 하류이다. 김극기(金克己)의 시(詩)에, “...토령(兔嶺)의 정상에 올라보고, 문천의 물가를 따라가네...첩첩한 산은 병풍처럼 둘러있고, 출렁이는 물은 거울처럼 반짝이네. 구름 끝엔 황곡(黃鵠)이 붙어 날고, 수면에는 붉은 잉어 뛰노네...” 또 불제시(祓禊詩)에는, “...남산(南山) 1만 송이 푸른빛 소리(靑螺) 드러나네. 산의 세찬 형제 5백 리를 치달다가, 중도에 구부러져 비스듬히 솟았네. 그 아래 한 줄기 문천이 있으니, 만 번 꺾고 천 번 서러 구불구불 흐르네. 월정교(月精橋) 어귀 향해 달려 나아가니, 놀란 물결 부서져 옥을 울리는 소리롭다. 업장루(嚴莊樓) 아래 외선 흐름 차츰 질펀하여, 물결은 잔잔하고 모래는 평편하여 비단을 펼쳐 놓은듯...”하였다. (제21권 경주부)

또한 이들 수정 요소는 그 흐름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 특징적이며, 각 하천이 발원한 곳과 고을에서의 상대적 위치, 지역에 따른 명칭의 변화, 다른 하천경관과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하천이 지닌 군사, 농업관개, 수운 등 국가적으로 관리되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 '수(水)'는 전통적으로 '강'이나 '천'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쓰임새는 적었다. 길게 흐르는 '강'은 지역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다르기도 하였다. 낙동강의 사례를 보면 '개산강(開山江)'은 경북 고령지방에서, '황산강(黃山江)'은 경상남도 양산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이며, '삼분수(三分水)'는 낙동강 하류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이다[16]. 또한 잘 알려진 한강(漢江)이 '한수(漢水)'로, 청천강(淸川江: 평북)이 '살수(薩水)'로[18], 만경강(萬頃江: 전북)이 '사수(泗水)'⁸⁾로 불렸던 것이나 사천천(泗川川: 사천)과 쾌천(掛川: 청송)이 각각 '사수(泗水)'와 '초수(椒水)'라고 칭했던 사례가 있다[16]. 따라서 '수'는 「산천」 항목에 기술된 순서와 내용으로 볼 때 '강'이나 '천'과 같은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활수(滑水: 압록강 지류)'에서 보듯이 '수'가 '천'보다는 다소 긴 하천이지만 가항하천(可航河川)이 아닐 때 붙인 명칭이라는 견해도 있다[29].

- 낙동강(洛東江) 주 동쪽 36리에 있다. 문경(聞慶)의 용연(龍淵)과 군위(軍威)의 병천(竝川) 등 여러 물이 주의 동북쪽에 이르러 용궁(龍宮) 하풍진(河豐津)에 합하여 남으로 흘러 낙동강이 되어, 선산부(善山府) 경계로 들어간다. 여기로부터 바다에 들어가기까지 비록 땅에 따라 이름은 다르나 총칭 낙동강이라 하고 가야진(伽倻津)이라고 일컫는다. (제28권 상주목)
- 응천(凝川) 부의 남쪽 성(城) 밑에 있다. 그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청도군의 동쪽에 있는 운문산(雲門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풍각현의 북쪽에 있는 비슬산에서 나와서 청도군 유천역(楡川驛) 곁에 이르러 합류하여 부의 성의 남문(南門)을 지나 해양강으로 들어간다. (제26권 밀양도호부)
- 호계(虎溪) 부성(府城) 북쪽에 있다. 물의 근원이 분산(盆山)에서 나오며, 남쪽으로 강창포(江倉浦)에 들어간다. (제32권 김해도호부)
- 사수(泗水) 현 남쪽 4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고성 무량산(無量山)에서 나오며 서쪽으로 진주 강주포(江州浦)에 흘러든다. (제31권 사천현)
- 삼분수(三分水) 전해 오는 속설(俗說)에, 낙동강(洛東江) 물이 남쪽으로 흘러 부 북쪽 뇌진(磊津)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옥지연(玉池淵)·황산강(黃山江)이 되며, 또 남쪽으로 흘러 부 남쪽 취량(鷺梁)에 와서 바다에 들어가며 예성강(禮成江)과 합류하니, 바닷물이 국맥(國脈)을 응위하고 지점(地鉗)이 서로 응한다. 황산강 물이 세 가닥으로 갈라져서 바다로 들어갔으

로 삼분수 또는 삼차수(三叉水)라 하였다고 한다. (제32권 김해도호부)

하천경관 요소 중에서 ‘계(溪)’는 ‘ 시내, 시냇물’을 뜻하는 작은 물길이다[24]. 특이할 만한 것은 ‘계(谿)’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작은 물’이란 뜻[小字]으로 사용된 점이다[24]. 『설문해자』에서 ‘溪’는 보이지 않고 ‘谿’만 수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역시 ‘ 시내’이다. 따라서 조선시대까지 산간 지역의 시냇물을 일컫는 말로 ‘溪’와 ‘谿’가 함께 쓰였으나 상대적으로 ‘溪’가 많이 쓰였고 후대로 내려오며 ‘溪’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계’는 전통경관에서 산간에 위치한 별서 원림이나 구곡(九曲)의 승경지에서 자주 나타난다. 아래 함양군 서계(西谿)에 대한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은 계류에 형성된 자연 현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할 정도로 ‘계’는 경관적으로 주목되었던 수경 요소이다.

- 서계(西谿) 군 서쪽 8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팔랑현에서 나오는데, 제한역(蹄閑驛) 아래쪽 5리쯤에 이르러서는 두 산 골 사이에 돌이 뻗쳐서 바닥이 되었으며, 갈아놓은 것처럼 미끄럽고, 물줄기가 나는 듯 흘러 물방울을 튀기며, 굽은 낭떠러지에 내리 쏟아져 땀방울을 하는 것이 패옥 소리 같다. (제31권 함양군)

(2) 탄(灘), 퇴(瀨), 폭(瀑), 저(渚)

‘탄’, ‘퇴’, ‘폭’, ‘저’는 하천의 흐름과 지형 중에서 특징적인 한 지점을 이르는 수경 요소이다. ‘탄’은 현재 잘 사용하지 않지만, 18개소 출현하였다. 우리나라 산지(山地) 사이의 곡벽(谷壁)을 따라 흐르는 감입곡류하천(嵌入曲流河川)⁹⁾은 유속(流速)의 변화로 인해서 곳곳에 여울을 생성하는데, 이런 형태의 지점이 ‘탄’이나 ‘퇴’로 불렸다. 또한 협곡을 흐르는 곳이나 급류에서 생기는 여울로서 하천 바닥의 경사가 수직에 가까워지면 ‘폭(瀑)’이 된다[26]. 따라서 이들은 ‘수’, ‘강’, ‘천’, ‘계’의 선(線)적 하천경관 요소에 대비하여 물줄기의 한 장소를 이르는 점(點)적 경관 요소라는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흐름 특성을 갖는 동적인 하천경관 중에서도 ‘탄’, ‘퇴’, ‘폭’은 역동적 경관 요소이다. 이것은 「산천」 항목에서 물이 바위에 부딪혀 만드느 형상과 소리까지 경관 요소로 삼았던 것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탄’은 사전적으로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며, 「산천」 항목에서 지명어 사례를 보면 ‘천(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경관인 ‘진(津: 나루)’과 더불어 하천을 건너거나 선박의 운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실용적 면¹⁰⁾과 특징적 자연경관¹¹⁾으로 인해서 하천의 흐름 내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인식되었다.

‘퇴’는 『설문해자』에 ‘수류사상야(水流沙上也)’라고 하였으며, 『한한대사전』에는 ‘사석(沙石) 위를 흐르는 얇고 빠른 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전적으로 ‘탄’과 함께 여울을 뜻하지만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아래 「산천」 항목에 기술된 사례를 보면, ‘천’의 본류(本流)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탄’에 비해서 ‘퇴’는 상대적으로 상류의 골짜기 암반에 형성된 경관적으로 뛰어난 곳을 지칭한다. 사례로 기술된 음풍퇴(吟風瀨)는 가야산 홍류동(紅流洞) 깊은 계곡의 ‘가야칠곡(伽倻七曲)’ 중 제5곡이며[32], ‘가야19명소’ 중 하나이다. 또한 조선 후기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가야산산수기(伽倻山山水記)」에서 이 일대의 경관을 ‘광풍퇴(光風瀨), 제월담(霽月潭), 완재암(宛在巖), 분옥폭(噴玉瀑), 낙화담(落花潭), 음풍퇴(吟風瀨) 등이 새겨져 있는데 모두 최치원이 노닐던 곳이다’라고 하여[33] ‘퇴’가 하천 최상류에 형성된 승경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 와부란(瓦釜灘) 부의 동쪽 3리에 있다. 진보현(眞寶縣)의 신한천(神漢川), 청송부(淸松府)의 남천(南川), 임하현의 금소천(琴召川)의 하류이며 견항진의 남쪽에서 합류한다. 물야탄(勿也灘) 부의 동쪽 11리에 있다. 요촌탄의 하류이다. 요촌탄(蓼村灘) 부의 동쪽 40리에 있다. 예안현(禮安縣)의 부진(浮津)의 하류이다. (제24권 안동대도호부)
- 견탄(犬灘) 이규보의 시에, “개인 새벽 용포(龍浦)에 배를 저어, 황혼(黃昏)에 견탄에 머무르니, 간사한 구름은 떨어지는 해를 속이고, 사나운 돌은 미친 물결 막는다. 수국(水國)에는 가을이 먼저 쌀쌀하고, 배 위의 정자(亭子)는 밤이 새삼 차구나. 강산이 참으로 그림보다 나으니, 병풍에 그림으로 만들어 보지 말자.”하였다. (제29권 선산도호부)
- 음풍퇴(吟風瀨) · 지필암(泚筆巖) 해인사 골 안에 있다. 이 지역의 봉우리가 사방에 우뚝하고 급한 물결이 바람을 뿜어서, 소리가 전쟁터의 말소리와 같다. 커다란 돌이 시내를 임했는데 이끼가 끼지 않고 미끄럽기가 갈아놓은 것 같아 붓으로 글씨를 쓸 만하다. 찬성 강희맹이 일찍이 남쪽 지방에 유람하다가 여기에 와서, “이와 같이 훌륭한 곳이 아직도 이름이 없다 하니 어찌 문인묵객(文人墨客)의 부끄러움이 아니겠나.” 하고, 이에 물은 음풍퇴, 돌은 지필암이라 하였다. 음풍퇴 시에, “뿜는 물방울은 뛰는 구슬이 급하고, 놀란 물결은 주름진 비단이 깊다. 바람맞이에서 볼수록 부족한데, 웅덩이 밑에는 용이 있어 읊조리네.” 하였다. (제30권 함천군)

한편 ‘저’는 상기한 하천경관 요소와 구별되는 형태인데, ‘물’ 자체가 아닌 하천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특징적 지형을 지칭한다. 『설문해자』에서 ‘소주야, 수기성저(小洲也, 水岐成渚: 물길이 갈라놓은 작은 모래톱)’라고 하였으며, 『한한대사전』에는 ‘사주(砂洲)’라는 뜻이 있어서 하천에 형성된 모래섬이나 하천

변에 퇴적된 사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요저(都要渚)는 현재 김해시 생림면의 '도요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안동의 하회마을과 같이 감입곡류하천의 만곡부를 뜻하는 '물도리'에 형성된 모래톱 지형이다. 또한 『산천』 항목에서 '저'의 사례가 낙동강 하류에 접한 고을인 양산과 김해에서만 나타나며, 서술된 내용을 보면 큰 강 하류나 바다와 가까운 하구(河口)에 형성된 경관 요소를 지칭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동두저(東頭渚) 고을 남쪽 35리 측포 상류에 있다. (제22권 양산군)
- 도요저(都要渚) 부 동쪽 30리 지점에 있으며 강을 따라 민가가 있는데 거의 2백여 호가 된다. 집들이 뻗뻗하게 늘어서 올라가 서로 잇닿아 있는데 농업을 일삼지 않고 오로지 수운(水運)만을 익힌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팔아 상류쪽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재산을 만든다. (제32권 김해도호부)

2) 호소경관

(1) 호(湖), 연(淵), 담(潭), 추(湫)

'호', '연', '담', '추'는 하천의 흐름이 한시적으로 멈춰 일정 지역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서 유로 상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경 요소이다. 이외에 '소(沼)'도 전통경관에서 많이 쓰인 호소경관 요소지만 경상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호'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경포호(鏡浦湖: 강릉), 영랑호(永郎湖: 간성), 청초호(靑草湖: 양양)처럼 규모가 큰 자연 석호(潟湖)에 일반적으로 붙었던 명칭이다. 반면 내륙 지방에서 '호'가 사용될 때 하천, 특히 '강'의 흐름 중에서 넓고 잔잔한 지점을 일컫는데 '연'과 '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류에 형성된 요소를 칭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설명하는 사례로서 조선시대 한양을 흐르는 한강의 지역별 명칭에 두모포강(豆毛浦江), 용산강(龍山江), 마포강(麻浦江)이 있는데, 강면(江面)이 넓고 수세(水勢)가 완만하여 마치 큰 호수와도 같았기 때문에 각각 동호(東湖), 남호(南湖), 서호(西湖)라고 불렀던 것[34]을 들 수 있다.

- 금호(琴湖) 부의 서북으로 11리에 있다 그 근원이 돌이 있는데, 하나는 영천(永川郡) 보현(普賢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모지(母子山)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흘러 사문진(沙門津)으로 들어간다. (제26권 대구도호부)

'연'과 '담'은 하천 중 · 상류에 형성되는 자연 '못' 형태인데, 산간 지역을 흐르는 감입곡류하천의 유속이 느리게 곡류하는 부분에서 잔잔하게 넓고 깊은 못을 이루는 지점을 특징적 경관으로 인지한 것이다. 이 중에서 '연'의 출현 빈도가 높았는데, 『산천』 항목에 기술된 사례를 보면 '서로 다른 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비교적 큰 규모의 못'을 지칭한다. '추(湫)', '담

(潭)'과 더불어 '폭포 아래 형성된 깊은 못'을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연'은 경관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기우(祈雨)와 관련하여 감응(感應)을 구하는 장소로 인식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황룡연(黃龍淵: 울산), 용연(龍淵: 봉화, 문경), 이목연(李木淵 이무기: 청도)¹²⁾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물을 다스리는 상징 동물로서 '용(龍)'이 사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용유담(龍遊潭: 함양), 용추(龍湫: 문경, 김해)의 사례처럼 고여 있는 깊은 못은 이와 같은 인식을 동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 용연(龍淵) 현의 남쪽 22리, 가은과 소야 두 내가 합류하는 곳에 있다. (제29권 문경현)
- 월연(月淵) 부의 동쪽 7리에 있다. 재악의 물이 추화산 동쪽에 이르러 응천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구연(臼淵) 천화령 아래에 있는데, 둘레가 1백여 자이다. 폭포가 돌에 떨어져 움푹 파여서 못의 모양이 꼭 절구와 같은 까닭에 이름지었다. 세상에 전하기를, "용이 있으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데, 가물에 범의 머리를 집어넣으면 물을 뽑아서 곧 비가 된다." 한다. (제26권 밀양도호부)
- 입암연(立巖淵) 고을 서쪽 20리에 있으며 언양현(彦陽縣) 남천(南川) 및 취성천(鷲城川)이 합쳐 흘러서 이 못이 되었다. 바위가 물 가운데 탐갈이 서 있고, 그 물이 검푸르러서 세상에 전하기를 용이 있어 가물 때에 비를 빌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제22권 울산군)
- 용연(龍淵) 래백산 아래 있다. 가물 때 기우(祈雨)하면 응험이 있다. (제25권 봉화현)
- 도장연(道場淵) 물의 근원이 여항산 동쪽에서 나온다. 군 남쪽 10리 지점에 이르러 고여서 못이 되었는데,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 날씨가 가물 때마다 범의 머리를 담으면 영험이 있다. 또 파산 서쪽에서 나오는 작은 냇물과 합치고 군 동쪽을 지나서 대천이 된다. (제32권 함안군)

'담'은 승경지를 지칭하는 곳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하천의 상류에 형성된 자연 못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망라담(網羅潭: 안동), 월명담(月明潭: 예안), 용유담(龍遊潭: 함양)의 명명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호소경관 요소에 비하여 경관적, 풍류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 용유담(龍遊潭) 담의 양 곁에 편평한 바위가 여러 개 쌓여 있는데, 모두 갈아놓은 듯하다. 옆으로 벌려졌고 곁으로 펼쳐져서, 큰 독 같은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기도 하고, 혹은 술 항아리 같은데 온갖 기괴한 것이 신의 조화 같다. 그 물에 물고기가 있는데 등에 가사(袈裟) 같은 무늬가 있는 까닭으로 이름을 가사어(袈裟魚)라 한다. 지방 사람이 말하기를, "지리산 서

북쪽에 달공사(達空寺)가 있고, 그 옆에 저연(猪淵)이 있는데 이 고기가 여기서 살다가, 해마다 가을이면 물따라 용유담에 내려왔다가, 봄이 되면 달공지(達空池)로 돌아간다. 그 까닭으로 엄천(嚴川) 이하에는 이 고기가 없다. 잡으려는 지는 이 고기가 오르내리는 때를 기다려서, 바위 폭포 사이에 그물을 쳐 놓으면 고기가 뛰어들다가 그물 속에 떨어진다.” 한다. (제31권 함양군)

「산천」 항목에 기술된 ‘추’의 사례를 보면, 산정(山頂)에 가까운 하천 최상류에 형성된 자연 못을 지칭하며, 다른 수경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성주 무흘구곡(武屹九曲)이나 상주 연악구곡(淵嶽九曲)에서 구곡의 최상류 지점인 제9곡의 명칭에 ‘용추’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형태적으로 주변 암반에 둘러싸인 ‘좁고 깊은 못’이며, 흔히 수직 낙하하는 폭포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승경으로 인지되는 요소이다.

- 용추(龍湫) 새재(草站) 밑의 동화원(桐華院) 서북쪽 1리에 있다. 사면과 밑이 모두 돌이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폭포가 있다. 용이 오른 곳이라고 전한다. 이변갑(李變甲)의 시에, “용이 꿈틀거리어 소용돌이를 헤치니, 잠긴 하늘에 밝은 달이 새롭다. 개인 날 우레 소리에 흰 무지개 뻗치니, 황홀하구나! 누가 그 신비를 알리.” 하였다. (제29권 문경현)
- (김해 명월)산 아래 구량촌(仇良村)에 견조암(見助巖) 수참(水站)이 있어서 왜(倭)의 사신을 접대한다. 산 꼭대기 돌 틈에 구멍이 있어 물이 되었는데, 높이와 넓이가 모두 5자쯤 되며, 깊이는 7자쯤 된다. 위아래와 사방이 편평하고 반듯하다. 그 안쪽 한복판에는 둥근 지름이 3자 되는 구멍을 이루고 있으며 구멍 속 물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용추(龍湫)라고 부른다. (제32권 김해도호부)

(2) 지(池), 당(塘), 택(澤)

‘지’, ‘당’, ‘택’은 물이 ‘괴어 있거나’, ‘모아 놓은 곳’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호소경관과 달리 하천의 물줄기에 직접 명명된 경관 요소라기보다 평야지대에 하천이 유입되어 형성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못이나 늪뿐만 아니라 인위적 목적으로 축조된 못까지 포함된다.

출현 빈도가 높은 ‘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지만 상주 공검지(恭檢池), 체천 의림지(義林池)와 같이 관개용 저수지로서 실용적 목적에서 인공적으로 축조된 못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해자』에서도 ‘정수왓지(停水曰池; 고인물)’, ‘방죽(陂也; 물을 막은 보)’, ‘천지통수(穿池通水)’¹³⁾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천」 항목에 고을 중심으로부터 상대적 위치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도록 척(尺) 단위까지 둘레를 정확

히 표기하여서 ‘지’가 농업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남지(南池) 객관이 작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못을 파서 이 언덕을 들렀다. (제29권 함창현)
- 개천지(開天池) 현의 북쪽 21리에 있는데 현감 이간(李杆)이 쌓았다. (제25권 비안현)
- 주촌지(酒村池) 부 남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둘레가 4천 2백 30척이다. (제32권 김해도호부)
- 공검지(恭檢池) 주 북쪽 27리에 있다. 고려(高麗) 명종(明宗) 때에 사록(司錄) 최정분(崔正份)이 옛터를 따라서 쌓았는데, 둘의 길이가 8백60보이고 둘레가 1만6천6백47척이다. 그 못이 실상은 함창(咸昌)에 있는데, 상주 백성들이 관개(灌溉)의 이익을 독차지한다. 불암지(佛巖池) 주 북쪽 4리에 있다. 둘레가 1천9백31척이다. 대제지(大堤池) 단밀현(丹密縣) 북쪽에 있으며 주에서 68리다. 기지(機池) 주 남쪽 6리에 있으며 둘레가 4천1백81척이다. (제28권 상주목)
- 공검지(恭檢池) 현의 남쪽 13리에 있다. 홍귀달(洪貴達)의 기문에, “방죽(陂澤)이 많기로는 남방이 제일이요, 그 크기로는 공검지에 비길 만한 것이 없다... 은하수가 땅에 흘러 통하는 것을 땅이 새지 않게 하여 백성들에게 관개의 이익을 주고, 나머지 물줄을 빚어내어 영주(瀛洲)의 항아리 속 물결(술)이 되게 하여 인간세상에서 구경하고 노는 지에게 주게 한 것인가. 함창의 모든 산들이... 잇달아 늘어서 사람이 유람하고 관상함을 맞이하는 것 같으니, 어찌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내어놓아 함창 백성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후략)”하였다. (제29권 함창현)

‘당’은 ‘제(堤; 방둑)’ 또는 ‘지역왓당(池亦曰塘)’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36], 『한한대자전』에서 ‘둑, 못, 저수지’를 이른다 고 설명되어서 ‘지’와 함께 관개 시설로서 역할에 주목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주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통조경 용어로서 ‘지당(池塘)’은 경관 완상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된 호소경관 요소가 결합된 단어이다. 한편 ‘당’의 사례로 기술된 ‘용당(龍塘)’은 전국적으로 ‘용이 살거나 승천하였다’는 전설과 관련되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¹⁴⁾ 이는 선조들이 ‘용지(龍池)’, ‘용연’, ‘용담’, ‘용추’와 마찬가지로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용이 살고 있는 신성한 장소라고 여겼던 사실과 같다.

‘택’은 『설문해자』에서 ‘얕은 못’이라고 하고, 『한한대자전』에는 ‘진필’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창녕의 누구택(樓仇澤)이 현재의 우포늪¹⁵⁾이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을 지칭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 설명에서 ‘지’처럼 둘레를 표기하고 있으나 리(里) 단위의 개략적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차이

가 있다.

- 용당(龍塘) 부의 서쪽 5리에 있다. 산의 돌 사이에서 샘이 솟아 나와서 큰 못이 되었다. 그 아래에 관개(灌溉)하는 토지가 매우 넓어서 백성들이 그 이(利)를 입고 있다. (제24권 영해도 호부)
- 장택(長澤) 현의 서쪽 9리에 있다. 들레가 4리요, 못가에 금계돈(金溪墩)이 있다. (제27권 현풍현)
- 누구택(樓仇澤)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용장택(龍壯澤) 현의 서북쪽 20리에 있으며 들레가 5리다. (제27권 창녕현)

(3) 천(泉), 정(井)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과 관련된 ‘천’과 ‘정’은 지하수의 흐름과 관련하여 고여 있거나 솟아나는 수경 특성을 지니므로 호소경관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수경 요소의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었던 수원(水源) 및 치료와 관련된 생활경관으로서 특징을 보여준다. 「산천」 항목에서 ‘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 우물[井]이 아닌 천연적으로 형성된 샘을 지칭한다. 따라서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장소와 관련하여 ‘온천(溫泉)’과 ‘온정(溫井)’이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는데, 이들 사례만으로 ‘천’과 ‘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 조천(潮泉) 조천은 돌이 있다. 하나는 현의 남쪽 소둔산에 있는 것으로서 물이 비위 구멍에서 나온다. 그 근원이 줄(線)같아 매일 아침저녁으로 솟아 넘쳐서 3리까지 번져 가고 멎는 것이 마치 조수가 왕래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현의 남쪽 5리 정곡리(井谷里)에 있는 것으로서 흙구멍에서 나와 매일 세 번 뿜어 넘쳐 동구(洞口)로 나와 소야천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물밀이(水推)라고 부른다. (제29권 문경현)
- 온천(溫泉) 현의 동남쪽 17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제27권 영산현)
- 온정(溫井) 현의 북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 온도는 닭도 익힐 수 있는 정도이며, 병을 지닌 사람이 목욕만 하면 곧바로 낫는다. 신라 때에 왕이 여러 번 여기에 오곤 하여 돌을 쌓고 네 모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웠는데, 그 구멍이 아직껏 남아 있다. 박효수(朴孝修)의 시에, “골짜기 깊숙한 곳 돌못(石塘)이 펼쳐 있어, 맑게 흔들리는 물 가득히 괴어 있네. 허리에 닿을 정도 저우 2자 깊이지만, 따스한 연기 같고 안개 같은 것 그 주위에 김 오른다.”(후략)하였다. (제23권 동래현)

3) 해안경관

(1) 랑(梁), 항(項), 콧(串)

해안가 고을에서 나타나는 이들 수경 요소는 육지와 바다의 연결 부위에 형성된 특징적 지형 경관이다. ‘랑’과 ‘항’이 서로

마주보는 지형의 일정한 장소라면, ‘콧’은 바다로 향한 넓은 범위의 돌출 지형이다. 동해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랑’과 ‘항’은 바닷가 육지의 끝자락과 섬 사이 혹은 섬과 섬 사이의 해안 지형으로서 ‘좁은 물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대동여지도」에도 ‘랑’은 ‘콧’과 함께 해양과 관련된 지명으로 분류되었다[38]. ‘랑’은 『설문해자』에 ‘수교(水橋)’, 『한한대자전』에는 ‘들보’, ‘나무다리’, ‘어랑(魚梁: 물을 막아 고기를 잡는 시설)’이라고 기술되었으며, ‘항’은 ‘두후(頭後: 목덜미)’, ‘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랑’에 관한 「산천」 항목의 사례를 보면, 육지와 섬 사이를 건너기 위한 짧은 동선 상에 위치한 곳을 지칭한다. ‘항’은 초랑항(草梁項: 동래), 명랑항(鳴梁項: 진도 울돌목)에서 볼 수 있듯이 ‘랑’과 유사한 경관 유형이며, 좁은 해협 물살이 빠른 곳을 지칭하기도 한다[29]. 한편 ‘항’이 내륙 지형에서 ‘문(門)’을 의미하는 좁은 통로를 지칭한다는 점¹⁶⁾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취랑(鷺梁) 부 남쪽 30리 지점에 있으며 들레 20리에 흰 모래가 평평하게 깔려 있다. 섬 남쪽에 우뚝한 돌이 바다에 서 있는데 취암(鷺巖)이라 부른다. 섬 북쪽의 바닷물이 가장 깊은데, 배가 정박하여 밤을 지내는 곳이다. (제32권 김해도호부)
- 견내랑(見乃梁) 현 서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바로 바다이다. 고성(固城)에서는 여기를 건너야 본현(本縣)에 들어오게 된다.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창랑수(滄浪水)에 발을 씻고 두악주(杜若洲)에 배를 대누나. 파도가 아니 푸른 멧부리가 끊어진 듯 하고, 바다가 넓으니 파관 하늘이 등실하네. 조공(曹公 조조)은 창을 가로잡고 시 읊었고, 한(漢) 나라 사신은 타고 놀았다지. 오가노라 이틀을 머무르며 모래 위 갈매기 짝을 짓는다.” 하였다. (제32권 거제현)
- 오해야항(吾海也項) 동평현에 있으며, 현까지의 거리는 43리이고, 목장이 있다. 초랑항(草梁項) 절영도(絶影島) 안에 있다. (제23권 동래현) 미조항(彌助項) 현 동남쪽 87리 지점에 있다. (제31권 남해현)

‘콧’은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육지의 끝자락이며, 해안선에 형성된 특징적 형태로서 주목된다. 「산천」 항목 사례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들레가 백리 안팎이나 되는 넓은 구역으로 인지되었으며, 해안가 광활한 지형을 이용하여 나라의 말을 기르는 목장(牧場)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해안의 영일 동을배콧(冬乙背串)이 유일한데, 이는 현재의 호미곶이며[16], 콧은 대다수가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한다.

- 동을배콧(冬乙背串) 현의 북쪽 66리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 (제23권 영일현)
- 말을상콧(末乙上串)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들레가 1백 30리이며, 목장이 있다. 해평콧(海平串) 현 남쪽 40리 지점에

있다. 둘레가 1백 40리이며 목장이 있다. (제32권 고성현)
 • 여화곶(汝火串) 위산현 남쪽에 있다. 둘레가 45리이며 목장이 있다. 가덕도(加德島)의 목장을 헐파하고 그곳 말을 여기에 옮겨왔다. (제32권 칠원현)

(2) 정(汀), 도(島)

‘정’은 『설문해자』에 ‘수제평사(水際平沙)’라고 하여 ‘물가의 모래들’로 설명하였으며, 모두 동해안에서 나타났다. 영해의 경정(鯨汀; 고래불 해수욕장)이나 백석정(白石汀) 사례에서 보듯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지칭하는 경관 요소이다.

섬을 의미하는 ‘도’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도서(島嶼) 지역의 생리(生利), 지리, 행정적 중요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대부분 해안가 고을에 집중되었으나 밀양의 우도(牛島)처럼 하천에 형성된 섬도 기록되었다. ‘도’의 명칭은 그 형상이나 식물상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기능적으로 ‘곶’처럼 목장을 경영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백석정(白石汀) 부의 북쪽 20리에 있다. 경정(鯨汀)·장정(長汀) 모두 부의 북쪽 10리에 있다. (제24권 영해도호부)
- 동백도(冬柏島) 고을 남쪽 30리에 있다. 동백이 섬에 가득한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 (제22권 울산군)
- 축산도(丑山島) 바다 가운데에 있다. 그 형상이 소(牛) 같아서 축산(丑山)이라고 한다. (제24권 영해도호부)
- 산달도(山達島) 현 서쪽에 있으며 둘레가 32리이다. 목장이 있다. 칠천도(漆川島) 현 동쪽에 있으며 둘레가 51리이다. 목장이 있다. (제32권 거제현)
- 가덕도(加德島) 현 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둘레는 75리이며 목장이 있다. (제32권 웅천현)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관찬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에서 경상도 67개 군현의 「산천」 항목에 수록된 수경과 관련된 지명을 발췌하여 다양한 수경 요소를 제시하고, 수경 요소별 경관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산천」 항목에 수록된 수경 요소는 22개로 분류되어 전통 수경관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입지와 물 흐름의 특성에 따라서 수경 유형을 하천경관, 호소(湖沼)경관, 해안경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39%, 34%, 27%로 비교적 동등한 비율로 분포하였다.

2. 수경 유형 중에서 자연적 물 흐름을 향시 유지하는 하천경관은 물줄기의 위계와 관련된 선적 형태의 ‘수(水)’, ‘강(江)’,

‘천(川)’, ‘계(溪)’와 감입곡류하천의 특성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점적 형태의 ‘탄(灘)’, ‘퇴(瀨)’, ‘폭(瀑)’으로 구성된다. 특히 후자는 물과 바위가 어우러져 역동적 경관성이 돋보이는 수경 요소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때 ‘탄’에 비해 ‘퇴’는 상대적으로 상류의 골짜기 암반에 형성된 수경 요소이다. ‘저(渚)’는 큰 강의 하류나 바다와 가까운 하구(河口)에 형성된 퇴적 지형의 경관을 지칭한다.

3. 일정 구역에 모인 물 형태를 갖는 호소경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호(湖)’는 ‘강’의 흐름 중에서 비교적 중하류에 형성된 넓고 잔잔한 지점을 일컫는 수경 요소이며, 그밖에 하천 중상류 유로 상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淵)’, ‘담(潭)’, ‘추(湫)’와 평지에 모인 물로서 ‘지(池)’, ‘당(塘)’, ‘택(澤)’, 그리고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을 지칭하는 ‘천(泉)’, ‘정(井)’으로 구성된다.

4. 하천 합류 지점 및 상류의 경관성이 높은 곳에 이름 붙여진 ‘연’과 ‘담’, 최상류 지점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점에 지칭되는 ‘추’는 깊은 못 형태로 인해서 용이 사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기우(祈雨)와 관련되기도 하였다. 또한 ‘당’과 ‘택’에 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지’의 출현 비율이 높았는데, 못의 둘레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서 경관 완상뿐만 아니라 관개시설로서 실용성이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해안경관에는 육지와 바다의 연결 부위에 형성된 특징적 지형 경관으로서 육지와 섬, 혹은 섬과 섬 사이 공간을 지칭하는 ‘량(梁)’과 ‘항(項)’, 바다를 향해 돌출된 ‘곶(串)’, 바닷가 모래사장 형태의 ‘정(汀)’이 있다. 그리고 도서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이 반영되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도’가 포함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조들이 인식했던 다양한 수경 요소는 입지적, 경관적,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특징을 반영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과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서 형성된 자연에 대한 심미안이 인공을 최소화하고 자연이 주체가 된 우리 전통정원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조경학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기록물로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관적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전통 수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수경 요소별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한 시론적 연구라는데 의의를 지닌다. 다만, 조선시대 선비들도 동일한 장소를 시대에 따라 다른 경관 요소로 지칭하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조선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상도 지역에 한정하여 수경 요소에 대한 용례를 규정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타 지역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에 지역별로 편찬된 읍지 등 다른 지리지와 비교 연구, 이론적으로 고찰한 수경 요소의 개념을 실제 경관에서 확인하는 단계로 이어가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경관 이외의 다른 경관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전통경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 주 1) Hwang, K. W.(2011)은 『경관의 해석, 그 아름다움의 앞』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경관을 논하였다[1].
- 주 2) Ju, N. C.(2006)은 『한국건축사』에서 정원 건축물로서 정(亭)·누(樓)·각(閣)·사(榭)·당(堂)·현(軒)을 구분하고 그 쓰임과 특징을 예시하였다[2].
- 주 3) 지명을 언어로 부르고 표기한 것을 지명어라고 한다.
- 주 4) 「형승」 항목은 고을의 전체적인 풍경을 시문(詩文)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서술하였으며, 「형승」 항목이 수록되지 않은 군현이 많고 내용이 간략하여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누정」과 「제영」 항목은 유명한 누정과 경치를 읊은 시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건축, 조경, 지리, 국문학 등 여러 분야의 관심을 받아왔다.
- 주 5)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조선전기 각 도별 군현의 수는 경상도 67개소, 전라도 57개소, 충청도 54개소, 경기도 37개소, 강원도 26개소로서 총 241개소에 이른다.
- 주 6) 1407년(태종 7) 군사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경상도를 좌·우도로 나누어서 낙동강 동쪽을 경상좌도, 서쪽을 경상우도라고 칭했다. 이는 왕성에서 바라볼 때 경상도 지역의 좌·우측을 뜻하며, 경상우도에는 성주·선산·함천·함양·의령·남해·거창·사천·하동·고성·창원 등 28개 군현이 속한다[17].
- 주 7) 하천은 큰 내로서 대천(大川)을 의미하고, 강은 '천지대자(川之大者)'로서 하천이 큰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강은 양자(楊子)에서, 하천은 황하(黃河)에서 찾으므로 그 구별 기준은 상대적이다[27]. 수량과 물줄기의 흐름[水流]이 백 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장강과 달리 황하의 수량은 일정하지 않으며, 수류도 과거 천년 동안 1,500차례나 변했다. 이를테면 라오허(遼河), 하이허(海河)와 같이 수량과 수류의 진폭이 큰 물줄기를 일컬어 하(河)라고 한다[28].
- 주 8) '사수(泗水)'는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에 있는 강의 이름이며, 우리나라에서 공자를 흠모하는 뜻으로 강이나 천의 이름으로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 산청의 남사마을을 휘도는 개천의 이름을 사수라 칭하고 사양정사(泗陽精舍)를 지은 사례가 있다.
- 주 9) 감입곡류하천은 산지 사이를 곡벽의 제약을 받으면서 비교적 제한된 유로를 따라 곡류하는 하천을 말하며, 대부분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나타난다[31]. 일반적으로 감입곡류하천은 산과 어우러져 흐르기 때문에 산수경관이 빼어난 곳이 많다.
- 주 10) '탄'에 대하여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알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이라 하고[25], '물이 빨리 흐르고 돌이 많아 배가 다니기에 위험한 곳'이라 하였는데[24], 모두 '여울'이라 칭한다. 한편 징검다리를 놓아 건널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는 개울의 얇은 곳을 이르기도 한다[25].
- 주 11) 청송의 견탄은 고생대 석회암층으로서 우리나라 지질노두(긴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암석이나 지층이 식생 등으로 덮여있지 않고 직접 지표에 드러나 있는 것) 중에서 주목받는 곳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청송국가지질공원의 핵심이자 청송8경의 제1경인 백석탄(白石灘: 청송, 길안천 상류)이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포트홀(pot hole)이라고 하며, 오랜 시간 풍화되고 침식된 암반에 생성된 깊은 구멍들 주위에 맑은 물이 흘러서 조선시대에도 많은 유학자들의 탐승처가 되었다.
- 주 12) 『삼국유사』에서 '이목(梨木)'으로, 구비설화에서 '이목(李木)'이라고 표현되는데, 발음상 이무기를 유추하기에 충분하다[35].

- 주 13) 물을 저수하는 용기이자 못 안의 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 통기, 통수가 조절되게 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고이게 만든 못을 뜻한다[36].
- 주 14) 경남 양산시 용당동, 진주시 대곡면 용당, 고성군 구만면 용당마을, 부산시 남구 용당동, 북구 화명동 용당마을,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 목포시 용당동, 충북 괴산군 괴산을 용당 외에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 주 15)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누구택(樓仇澤)과 「대동여지도」의 누포(漏浦)는 현 우포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37].
- 주 16)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項]'이 '문(門)'과 '좁은 길목'을 의미하는 내륙의 경관 요소라는 사례가 많다.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유내연산기(遊內延山記)」, 「도산기행(陶山紀行)」과 같은 유산기(遊山記)에서 '사자항(獅子項)'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며, 흔히 '노루목'이라고 불리는 곳을 뜻하는 '장항(獐項)'도 전국적으로 다수 분포한다.

REFERENCES

- [1] Hwang, K. W.(2011). Interpretation of Landscape, The beauty and Know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eoul.
- [2] Ju, N. C.(2006). A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Press: Seoul.
- [3] So, H. S., Lim, E. J. and Choi, K. S.(2007). Ec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Pavilions and Its Landscape Gardens in Geochang Area,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2): 108-126.
- [4]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encykorea.aks.ac.kr>).
- [5] Jeong, E. S.(1997). A Study on Item Systems of Shinjung Tongguk Yoji Sungnam and Cheyong,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4): 19-33.
- [6] So, S. K.(2014). The 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cumentation of Local Product in the Revised and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 A Comparison with the Geographical Appendix to the Annals of the DongBangHakChi, 165: 33-64.
- [7] Park, B. C.(2012). A Study on the Decline of ibponym Words with '遷' in The Augmented Gazetteers of Korea, Eomunyeongu, 40(1): 35-56.
- [8] Yu, J. C.(1996). A Study on the Castles and Fortress in the Early Chosun-Dynasty: Focusing on the Record of Sinjeung Donggukyeojiseungnam, Military History, 33: 87-114.
- [9] Choi, J. S.(2003). A Study on the Gaekgwan in the former term of Chosun-With Focus on the SinjeungDonggukyeojiseungnam,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4(3): 175-192.
- [10] Ahn, G. B.(1993).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Dae(臺) through the Analysis of Sinjeung Donggukyeojiseungnam,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2): 26-36.
- [11] Yoon, K. B.(1982). A Study on the Garden terms in Goryeo Dynasty,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1): 28-40.
- [12] Beom, S. G.(2005). A Study on Physical Geographical Meaning of Sinjeung Donggukyeojiseungnam's Chapter on Gyeongsang-do,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7(2): 35-57.
- [13] Seong, H. J.(2006). Constituent of Place-Name in Korean, Toponymy (Jimyonghak), 12: 129-156.
- [14] Seong, H. J.(2010). On BPM of Traditional Place-Name in Korean, Toponymy (Jimyonghak), 16: 245-265.

- [15]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16]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2008), Encyclopedia of Origin of the Name of Place.
- [17]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encykorea.aks.ac.kr>).
- [18]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www.aks.ac.kr>).
- [19] Lee, U. H. Restoration Production(1997), The Restoration Map of Daedongyeojido, Monthly 'Mountain'.
- [20] Gwon, H. J.(1996), Korean Geography, Bobmunsa: Seoul.
- [21] Unigeo Korea(2011), Geography 2, Jayeonjiri, Humanist: Seoul.
- [22] Kim, J. U., etc.(2011), Natural Geography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eoul.
- [23] Heosin Seolmunhaeja-annotated by Dan, O. J., Compiled by Geum H. Y., Oh, C. G.(2013), Shuo-wen chieh-tzu(說文解字), Irwolsanbang: Seoul.
- [24] Chinese Chracter-Korean Dictionary(漢韓大字典)(1993), Minjung: Seoul.
- [25] Naver Encyclopedia (<http://terms.naver.com>).
- [26] Doosan Encyclopedia (doopedia.co.kr).
- [27] Oh, H. S.(2008), Aesthetics of Land Names, Dot, Buyonsa: Seoul.
- [28] Gang, H. B.(2002), China: The Country of Chivalrous Fighters, Hangilsa: Seoul.
- [29] Won, G. R.(1991), A Study of Daedongyeojido, SJ Map: Seoul.
- [30] Gwon, H. J.(1996), Korean Geography, Bobmunsa: Seoul.
- [31] Choi, B. G.(1995), The Development of the Bend of Upper Streams of the Nam Han river, Docto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32] Dongailbo, Sep. 9th, 1959 (<http://newslibrary.naver.com>).
- [33] Seong, H. U. Record of landscape of Gayasan Mountain, KOCCA CultureContent.com (<http://www.culturecontent.com>).
- [34] Lim, E. J.(1994),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LuJong of Seoul in the Chosun Dynas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35]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ttp://terms.naver/list.nhn?cid=50223&categoryId=50223>).
- [36] Kim, Y. M.(2012), The Encyclopedia of Traditional Landscape Facilities, Dongnyok: Paju.
- [37] Upo Swamp Cyber Bio Park, Changnyeong-Gun (<http://www.upo.or.kr>).
- [38] Kim, J. W.(2012), The Distribution and Korean Reading of Place Names followed by a Sino-Korean Word "ryang(梁)", Garamunhwa 24: 3-17.

원 고 접 수 일: 2016년 2월 18일
 심 사 일: 2016년 2월 29일 (1차)
 : 2016년 3월 16일 (2차)
 : 2016년 3월 19일 (3차)
 : 2016년 5월 26일 (4차)
 게 재 확 정 일: 2016년 5월 26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